김도영 "제2의 이종범 호칭에 걸맞은 야구 하겠다"

지난 31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 미디어데이에서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가운데)이 나성범(왼쪽), 김도영(오른쪽)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 프로야구 미디어데이

김종국 KIA 감독 "팬들을 야구장·TV 앞으로 모시겠다"
나성범 "좋은 성적으로 팀에 보탬되는 선수가 되겠다"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이 "절실한 마음으로 팬들의 야구장이나 TV 앞으로 모시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KBO가 지난 31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2022 신한은행 쏠(SOL) KBO 정규시즌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2022시즌을 예고했다.

이날 김종국 감독을 비롯한 10개 구단 사령탑과 KIA의 나성범과 김도영 등 스타 선수들이 참석해 올 시즌 각오를 밝히고, 정규시즌에 앞서 기싸움도 벌였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잇단 프로야구계 일탈 행위로 'KBO리그 위기'가 화두가 되면서 10개 구단 감독들은 '팬'을 우선 이야기하면서 새 도약을 다짐했다.

올 시즌 KIA의 지휘봉을 새로 잡은 김종국 감독도 "최근 3년 동안 KIA 팬 여러분께 실망을 많이 시켜드렸다. 저는 물론 우리 선수들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팬들을 야구장이나 TV앞으로 모시겠다. 지켜봐주십시오"라고 언급했다.

또 "홈개막전 승리를 준비했다. 열정적인 모습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승리'라는 최고의 팬서비스를 언급했다.

이날 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등장한 나성범과 김도영도 새 출발 각오를 다졌다.

나성범은 "새로운 팀에 온 만큼 작년보다는 좋은 성적으로 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범경기 타격 1위에 오른 김도영은 '굳은 의지'를 강조했다.

김도영은 "시범경기를 운 좋게 잘 마쳤지만 정규시즌은 다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제 2의 이종범'으로 불리는 김도영과 '이종범의 친아들' 이정후(키움)가 나란히 행사에 참석하면서 두 사람에게 시선이 쏠리기도 했다.

김도영은 '제2의 이종범' 호칭에 대해 "너무 영광스럽고 그런 호칭 듣는 것 만으로 성공했다는 생각이 든다. KBO에서 이정후 선배님처럼 잘하고 호칭에 걸맞게 잘하는 게 우선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정후는 "시범경기 때 봤는데 고졸 신인답지 않게 침착하고 공도 잘 고르고 파워도 넘쳤다. '제2의 이종범'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대학 졸업하고 (프로에) 오셨지만 (김도영은) 고졸로 들어왔기 때문에 25살, 30살 도영이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다치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다"고 응원을 보냈다.

2022시즌 '공공의 적'은 역시 KT였다.

지난 시즌 창단 첫 우승을 이룬 '디펜딩 챔피언'으로 박병호라는 자원까지 더하면서 올 시즌 많은 이들이 우선 경계하는 팀이 됐다.

나성범도 "어느 팀이든 잡도록 열심히 하겠지만 작년 우승팀은 KT는 꼭 넘고 싶다"며 KT를 경계했다.

KIA를 우선 목표 삼은 팀도 있다.

한화 하주석은 "KIA는 꼭 잡으려고 한다. 작년에 KIA에 많이 졌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이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KIA는 지난 시즌 한화를 상대로 10승 3무 3패의 강세를 보였다.

한편 미디어데이를 통해서 챔피언스필드를 비롯한 5개 구장에서 맞붙을 선발들이 공개됐다 .

KIA에서는 예상대로 양현종이 개막전 선발로 출격해 LG 애덤 플럿코와 맞대결을 벌인다.

잠실에서는 한화의 토종 선발 김민우와 두산의 로버트 스탁이 만나고, 고척에서는 롯데 찰리 반즈와 키움 안우진의 대결이 전개된다.

창원과 수원에서는 외국인 선수들의 맞대결이 준비됐다.

SSG 윌머 폰트-NC 드류 루친스키, 삼성 데이비드 뷰캐넌-KT 윌리엄 쿠에바스가 개막전 선발로 출격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최형우 역대 최다 타점 도전 … 양현종 3승 더하면 통산 150승

4월 2일 KBO리그가 개막하면서 그라운드에 봄이 찾아온다. 새 시즌에도 풍성한 기록이 쏟아진다. KIA에서는 '4번 타자' 최형우와 '돌아온 에이스' 양현종이 기록행진에 나서게 된다.

최형우는 '국민타자' 이승엽의 아성에 도전한다. 최형우는 올 시즌 역대 최다 타점과 최다 2루타를 겨냥하고 있다.

KBO 역대 최다타점 기록은 1498타점, 2루타는 436개로 모두 이승엽이 보유하고 있다.

최형우가 올 시즌 109타점과 29개의 2루타를 때려낸다면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최형우는 또 올 시즌 1900경기 출장(-88), 7000타수(-433), 350홈런(-8), 2200안타(-127), 3600루타(-35), 1200득점(-95), 1100사사구(-61) 등의 기록을 채워가게 된다.

나란히 KBO로 돌아온 '좌완 특급' 양현종과 김광현(SSG)에도 눈길이 쏠린다.

양현종이 앞으로 3승을 더 거두면 역대 4번째 통산 150승을 이룬 투수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통산 147승을 기록하고 있는 양현종은 이어 이강철(152승 112패 52세이브), 정민철(161승 128패 10세이브)을 넘기 위해 마운드에 오르게 된다.

양현종은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승리와 100탈삼진, 9시즌 연속 100이닝 투구에도 도전하게 된다.

빅리그에서 2시즌을 보내고 돌아온 김광현도 14승을 더하면 150승 고지를 넘어서게 된다.

SSG의 최정은 17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BO리그 올해 달라지는 것들

5위 결정전·얼리드래프트 신설
더블헤더와 월요일 경기는 폐지

KBO리그 출범 40주년을 맞는 2022시즌, 5위 결정전과 얼리드래프트가 신설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진행됐던 더블헤더와 월요일 경기는 폐지된다.

올 시즌 KBO리그의 달라지는 부분을 정리했다.

◇승률 동률시 5위 결정전

정규시즌 5위의 승률이 동률일 경우 올 시즌부터 5위 결정전이 진행된다. 지난해 KT와 삼성이 1위 동률을 이루면서 1위 결정전에 나섰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5위가 2개 구단일 경우 와일드카드 결정전 전날 순위결정전이 펼쳐진다. 5위가 3개 구단 이상일 경우에는 순위결정전 대신 '성적'으로 순위를 가리게 된다. 해당 구단간 경기에서 전체 전적 다승, 해당 구단간 경기 전체 다득점, 전년도 성적순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전면 드래프트, 얼리 드래프트 시행

우선지명이 사라지면서 기존의 1차, 2차 지명 방식이 아닌 전면 드래프트를 통해 새로운 선수들을 선발하게 된다. 또 얼리 드래프트도 도입되면서 참가 선수들의 폭이 넓어진다. 이에 따라 4년제 및 3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도 KBO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해 프로 무대에 일찍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덕아웃 불펜 모니터 설치

덕아웃에 상대팀 불펜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된다. 모든 구장에서 동일한 경기 운영 컨디션과 정보를 제공하고, 팬과 미디어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에는 자팀 불펜을 살펴볼 수 있는 모니터만 설치 돼 상대 불펜 상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

◇더 빠르고 세밀하게 … 비디오판독센터 판독 인원 증원

신속하고 정확하게 비디오 판독을 진행하기 위해 판독실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심판 한 명이 한 경기를 전담해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여러 구장에서 동시에 판정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신속하게 판단하면서 경기 시간 단축 등이 기대된다.

◇더블헤더, 월요일 경기 폐지

코로나19 상황과 국제대회 일정 등을 고려해 운영됐던 더블헤더와 특별 서스펜디드, 월요일 경기는 올해 편성되지 않는다. 우천 등의 이유로 취소되는 경기는 추후 편성된다. 지난 시즌 후반기 한시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연장전은 기존대로 12회까지 진행한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리그 중단 없이 진행

올 시즌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도 중단 없이 리그가 진행된다. 단, 한 팀의 소속선수와 육성선수 등 대체 인원을 모두 활용해도 28명의 엔트리(포수 2명 포함)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기가 순연 된다.

현역선수가 코로나19에 확진 될 경우 코로나19 특별 부상자 명단에 오르며, 대체 인원으로 교체된다. 확진 선수는 격리해제일로부터 경기에 나설 수 있으며 부상자 명단에 등재될 경우 10일이 지나지 않아도 엔트리에 복귀할 수 있다.

집단 감염으로 KBO리그 엔트리 등록 가능한 선수가 부족할 경우, 5월 1일 이전에도 육성 선수의 소속 선수 등록을 허용한다. 등록된 선수는 대체 선수로 KBO 엔트리에 합류할 수 있다.

소속선수와 육성선수 등 대체 인원을 활용해도 포수 2명을 포함한 28명의 엔트리를 구성하지 못하면 해당 경기는 순연된다. 다른 구단의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동시에 3개 구단 이상이 28인 엔트리 구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긴급 이사회(퓨처스리그의 경우 긴급 실행위원회)를 통해 리그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기가 순연되고 리그가 중단된 경우, 28명 엔트리 구성이 가능한 시점에서 경기가 재개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국제축구연맹(FIFA)이 30일(현지시간) 아디다스가 제작한 카타르 월드컵 공인구 '알 리흘라'의 기능적 특징과 디자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알 리흘라와 손흥민. /연합뉴스

카타르 월드컵 공인구 '알 리흘라' 공개

손흥민 모델로 나서
빠르고 정확하게 날아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용될 공인구가 공개됐다. 한국의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와 함께 새 공인구 공식 모델로 나섰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30일(현지시간) 아디다스가 제작한 카타르 월드컵 공인구 '알 리흘라'의 기능적 특징과 디자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FIFA에 따르면 아디다스의 풍동 실험장에서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만들어진 알 리흘라는 기존 축구공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날아가는 게 특징이다.

특히 특수한 돌기가 들어간 20조각의 사각형 폴리우레탄 피스가 공을 구성하는 '스피드셀' 기술이 정확도와 비행 안정성을 높인다.

알 리흘라는 친환경적인 수성 잉크와 수성 접착제로 만들어진 최초의 월드컵 공인구이기도 하다. 경기력 향상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도 초점을 둬 공을 제작한 결과다.

알 리흘라는 아랍어로 '여행'을 의미한다.

아디다스는 카타르의 문화, 전통 건축물 디자인을 반영해 새 공인구를 디자인했다.

특히 자주색과 짙은 파란색이 어우러진 색상은 개최국 카타르와 점점 빨라지는 축구 경기의 속도를 표현했다는 게 아디다스의 설명이다.

아디다스는 한국이 자랑하는 손흥민을 리오넬 메시 등과 함께 새 공인구 모델로 내세웠다.

배포된 홍보 사진에서 손흥민은 공을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거나 특유의 친근한 웃음을 보인다. /연합뉴스